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참고: CME 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의 이번 첫 금리 인하폭은 이번주 수요일에는 가능성이 14% 였으나 어제 목요일에는 28%,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전에는 43%로 상승했다

- Reuters: 인플레이 둔화로 9월 미 소비자 심리 상승
- Bloomberg: 전문가들, “연준, 올해 세 차례 0.25% 금리 인하”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3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 Bloomberg: 미 회계연도 끝나가면서 적자가 1조9천억으로 급등
- NYT: 해고 거의 없는데 왜 일자리 찾기 힘들까?

### [미국 금융]

- WSJ: 달러 약세 현상...연준 큰 폭 금리 인하 예상 또 고개 들어
- WSJ: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 [미국 생활]

- Bloomberg: 미국 교통 체증, 역대 최고 수준
- WSJ: 미국인, 공짜 현금 광고 클릭해 건강 보험이 갑자기 바뀐다

### [물류]

- Bloomberg: 홍해 사태 운임 급등으로 아시아에서 승자와 패자 갈린다

### [주택]

- CNNBusiness: 미국 세입자 절반은 소득 30% 이상 주거비로 지출
- Bloomberg: 최악의 미국 주택 시장, 회복세를 기다린다

### [인공지능]

- CNNBusiness: ChatGPT 제조업체 “새로운 AI 모델, 사람처럼 생각”

### [중국 경제]

- WSJ: 중국, 50세 퇴직 연령 힘들어져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 노조 결성 막기 위해 택배 기사 임금 인상

- CNBC: 보잉,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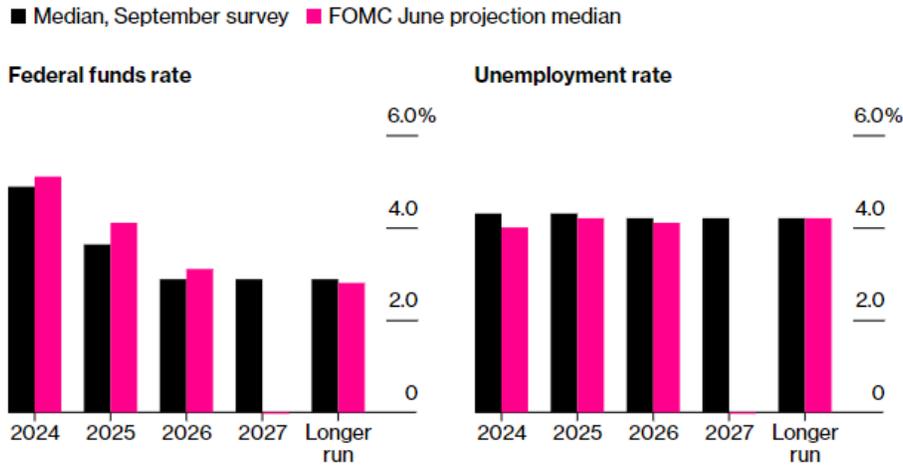
### Reuters: US consumer sentiment rises in September as inflation eases 인플레이션 둔화로 9월 미 소비자 심리 상승

- 미국인들이 오는 11월 대선은 앞두고 조심스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미 소비자 심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시간대학 소비자 심리의 전방적인 지수는 임시 수치가 69.0으로 나타나 지난 8월의 67.9보다 상승했다. 로이터 통신 전문가 조사 결과 예상치는 68.5였다.
- 향후 1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개월 연속 떨어져 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올해 8월의 2.8%보다 낮았다.
-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지난달의 3%에서 3.1%로 상승했다.

Reuters 기사

### Bloomberg: Fed to Pursue Three Quarter-Point Cuts This Year, Economists Say 전문가들, “연준, 올해 세 차례 0.25% 금리 인하”

-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0.25% 인하하고 그 이후 2차례 0.2%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 46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점차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말까지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총 1%포인트 예상과 대조되고 있다.
-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 극히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올해 11월이나 12월에 0.5% 포인트 인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Source: Bloomberg News survey conducted Sept. 6-11, Federal Reserve.  
 Note: The FOMC's June projections did not include a 2027 fore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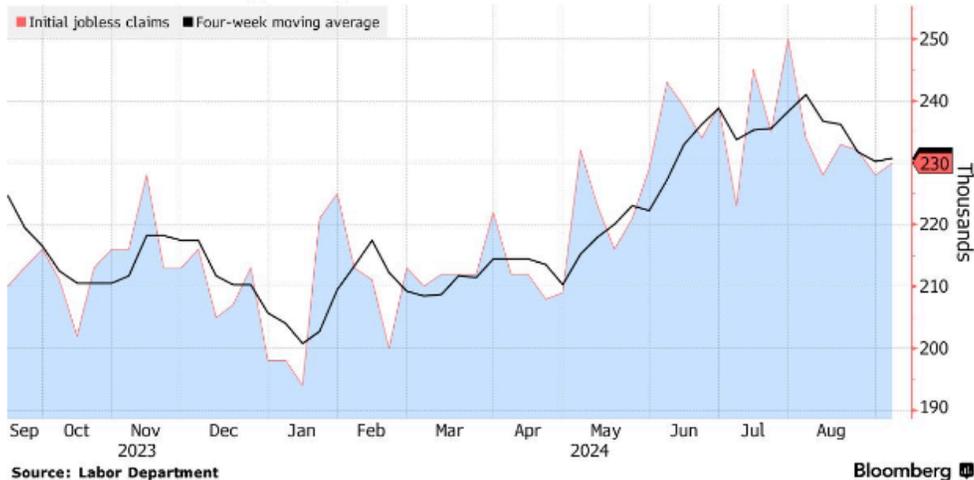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Pick Up For the First Time in Three Week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3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 3주 만에 처음으로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해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9월 7일까지의 청구 건수는 2천건 늘어난 23만건을 기록했다고 어제 목요일 연방 노동국은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는 22만6천건이었다.
-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도 1백85만건으로 늘었다.

**US Jobless Claims Rise For First Time in Three Weeks**  
 The four-week moving average rose for the first time in five weeks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Budget Gap Reaches \$1.9 Trillion as Fiscal Year Nears End

### 미 회계연도 끝나가면서 적자가 1조9천억으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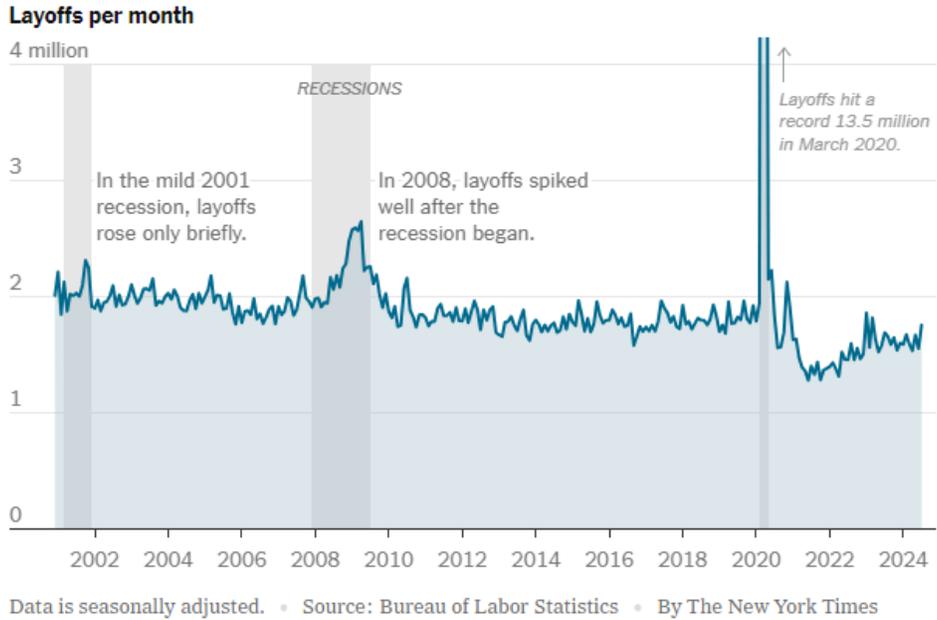
- 올해 연방 회계연도 기준을 한 달 남겨둔 8월에 연방 적자는 크게 증가했다. 높은 금리가 전체적인 대차대조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연도는 매년 9월에 끝난다.
-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연방 적자 1조9천억달러는 전년 회계 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늘었다고 연방 재무부는 어제 목요일 밝혔다. 8월만 해도 이미 적자가 3천8백억달러였다. 작년도 동월의 흑자가 크게 비교된다.
-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대학 학자금 용자 탕감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 때문이다.
- 특히 고금리가 적자 폭을 키웠는데 지난 11개월간 이자 비용은 전년도 동기 비해 30%가 늘어난 1조5백억달러다. 예전에는 이자 부담이 일반적으로 매년 1조달러를 넘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 NYT: Layoffs Are Few. So Why Are Jobs Harder to Find?

### 해고 거의 없는데 왜 일자리 찾기 힘들까?

- 요지는 과거 경제 사이클을 보면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 전에 시작되면서 대규모 해고는 그 뒤에 온다는 것이다.
- 현재 전반적인 해고는 팬데믹 이전의 강한 경제 상황 기간의 수준보다 낮은 편이고 실업 청구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 그러나 과거 침체 상황을 보면 해고 데이터만 갖고 노동 시장에 대해 위안을 얻을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감원은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됐을 경우에만 왔다.
- 예를 들어 주택 버블과 모기지 위기가 시작된 후인 2007년 말에 대침체가 시작되었지만, 실업률 상승은 2008년 초에 시작되었고, 2008년 후반에 들어서야(리만 브라더 몰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 시작 이후) 고용주가 감원을 시작했다.
- 2001년 완만한 수준의 침체 경우에는 실업률이 그해 5월 4.3%에서 그해 말 5.7%를 상승했다. 그러나 해고는 대체로 증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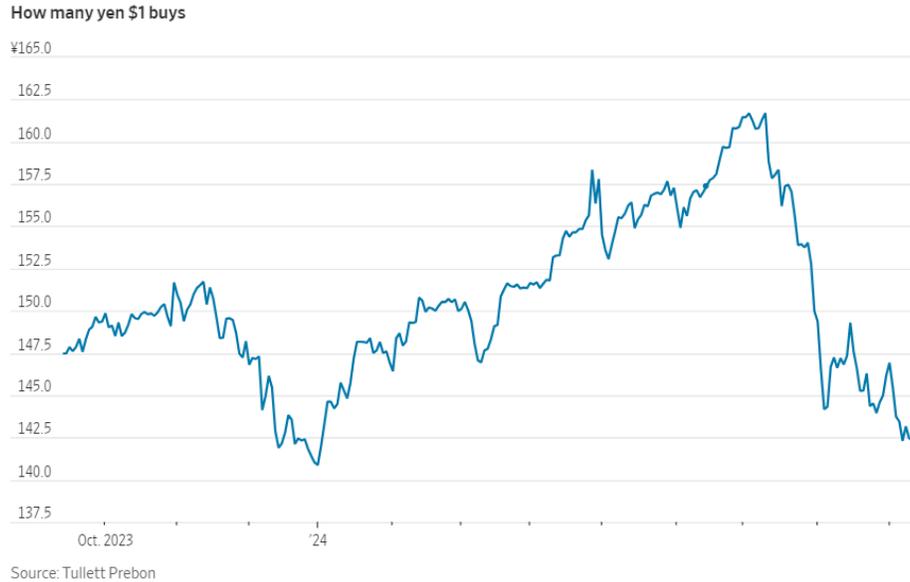


NYT 기사

### [미국 금융]

#### WSJ: Dollar Weakens on Talk of Bigger Fed Rate Cut 달러 약세 현상...연준 큰 폭 금리 인하 예상 또 고개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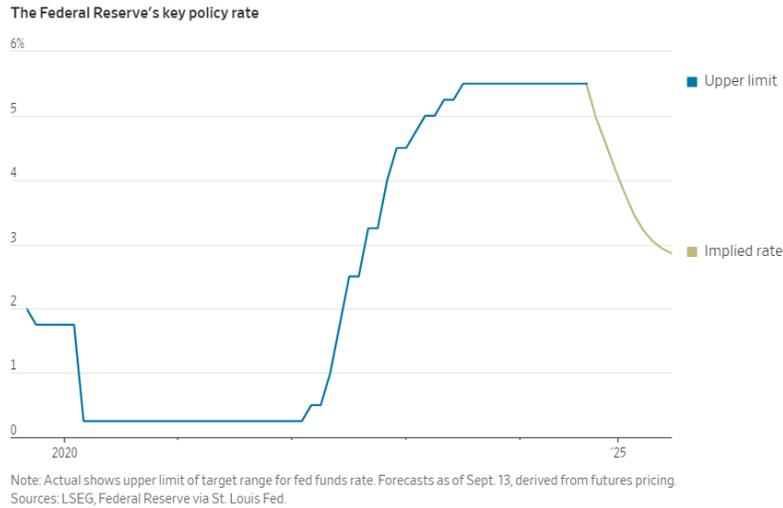
- 달러가 엔화에 비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다.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약세를 보인 것이다.
- 달러는 지난 12월 하순 이래 가장 약세인 달러당 140.39엔을 기록했다. 어제 목요일엔 141.80엔이었다.
-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옵션도 테이블에 놓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달러를 매도했다고 SuMi Trust의 전략가인 Katsutoshi Inadome는 말했다.



WSJ 기사

### WSJ: Interest Rates and the Fed: What to Expect Through the Rest of 2024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시작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현재의 5.25%~5.5%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3차례 회의를 통해 금년말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CME의 예상을 보자.
- 9월 18일: 선물 가격은 다음 주 금리 인하 폭이 0.25%나 아니면 0.5%냐 대해 55대 45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 11월 7일: 금리가 4.5%~4.75%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0.25%와 0.5% 금리 인하도 선택이 가능하다.
- 12월 18일: 금리가 4%~4.25%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시장 가격이 시사하는 예측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내년 중순에 금리가 3%에 달할 것으로 LSEG는 보고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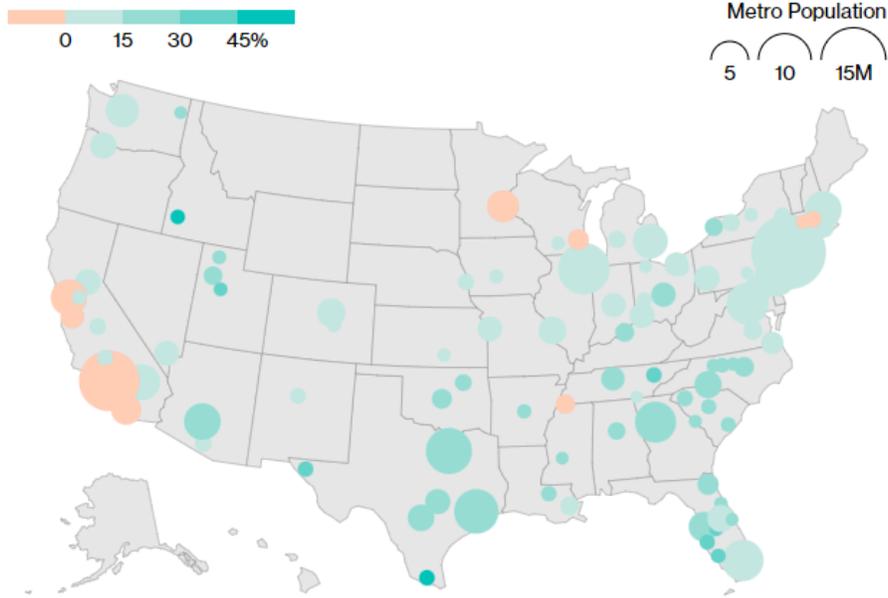
### [미국 생활]

## Bloomberg: US Driving and Congestion Rates Are Higher Than Ever 미국 교통 체증, 역대 최고 수준

- 교통 분석 회사 StreetLight Data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량과 교통 체증이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체 차량의 총 주행거리(VMT)는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시는 1인당 일일 주행 거리가 14.7%, 교통 혼잡은 1.8% 증가했다.
- Brookings Metro 선임 연구원 Adie Tomer은 VMT 데이터는 교통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VMT의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정책, 인프라 변화 등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장과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날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즉, 원격 근무가 더 높은 VMT로 이어진다.
- StreetLight Data의 콘텐츠 디렉터 Emily Adler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려면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도시 계획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Changes in Driving Since Covid in Top 100 US Metros

Only 10 metros kept VMT, or the total miles traveled by vehicle, below pre-pandemic levels over the last five years.



Source: StreetLight Data  
Note: Data shows percent change in average daily VMT between May 2019 and May 2024. All but one metro area — Poughkeepsie, NY — are shown on the map.

Bloomberg 기사

### WSJ: Americans Clicked Ads to Get Free Cash. Their Health Insurance Changed Instead.

미국인, 공짜 현금 광고 클릭해 건강 보험이 갑자기 바뀐다

- 수십만명의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알게 모르게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소셜미디어의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팬데믹 기간에 의회와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 커버를 쉽고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에서 받도록 했다. 거의 빈곤층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언제든지 건강보험에 서명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은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잘못된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 페이스북과 스냅챗 등의 광고는 건강보험을 바꿀 경우 6천4백불을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WSJ 기사

[물류]

### Bloomberg: Red Sea Crisis Produces Winners and Losers in Asia as Freight Rates Spike

#### 홍해 사태 운임 급등으로 아시아에서 승자와 패자 갈린다

-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홍해 사태의 파급 효과로 인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비싼 비용으로 힘든 반면, 선박회사들은 높은 운임료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컨테이너선들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홍해에서의 선박 공격 때문에 운송량을 거의 70% 줄였다. 자동적으로 운항 시간과 운임은 크게 상승했다.
- 이에 따라 Cosco Shipping Holdings 등 중국 화주들은 컨테이너 선박 비즈니스로 큰돈을 벌고 있는 반면에,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물류 고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선박 운행 지연으로 인해 싱가포르 항공사나 커세이 퍼시픽 항공사들의 항공 화물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Global Freight Rates Surge Amid Red Sea Woes

Rates jumped 363% from Dec. 7 to Sept. 11



Bloomberg 기사

### [주택]

### CNNBusiness: Nearly half of US renters spend more than 30% of their income on housing costs

#### 미국 세입자 절반은 소득 30% 이상 주거비로 지출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세입자 거의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인구조사국 통계학자 Molly Ross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세입자의 중간 임대료가 1천354달러에서 1천406달러로, 3.8% 상승했다고 말했다.
- 팬데믹 이후 몇 년 동안 주거비가 급등했다. 원격 근무 트렌드와 맞물려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관련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연준이 23년 만에

- 금리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이러한 수요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
- 산불,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의 보험료도 부담스럽다. 2023년 미국 주택 소유자 8천570만명 중 540만 명이 연간 보험료로 4천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다.
  -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은 2024년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주택 소유자를 위한 2만5천 달러 계약금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CNNBusiness 기사

## **Bloomberg: US Housing Market Awaits Boost After Worst Key Season in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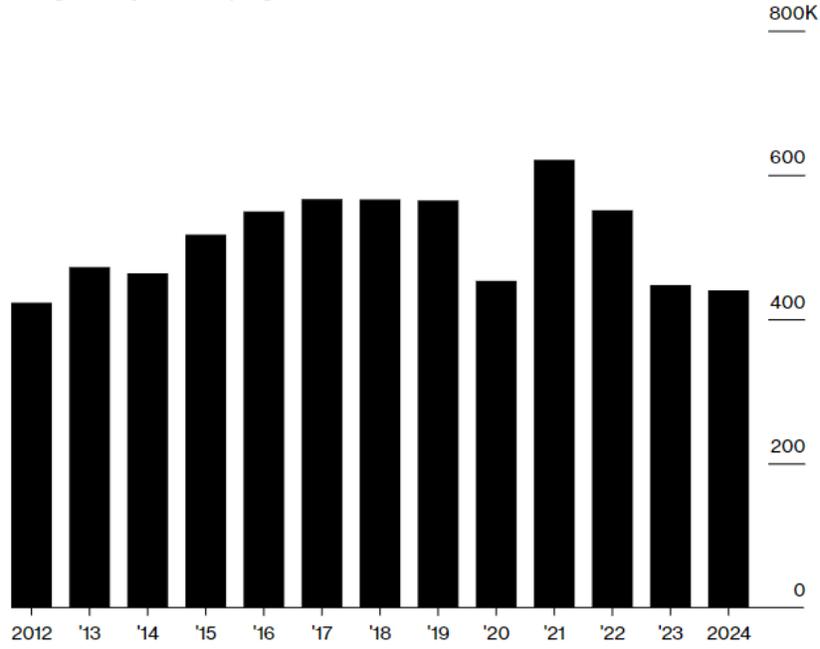
### **최악의 미국 주택 시장, 회복세를 기다린다**

- 미국 주택 시장은 십여년 만에 최악의 봄철 주택 판매 시즌을 보냈다. 이제 문제는 연준이 침체된 주택 시장이 살아날 만큼 적당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최근 고용 지표는 경기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3년 10월보다 160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져 2023년 2월 이후 최저치인 6.2%를 기록했다.
- 많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비용이 더 저렴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락인 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약 170만채의 주택이 판매되지 못했다고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은 밝혔다. 구매자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 Redfin 수석 이코노미스트 Daryl Fairweather은 “그래도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결국엔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일부만 낮은 금리를 활용하기 위해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도 곧 다른 구매자들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 US Home Sales Stalled in Spring

Low supplies and high prices led to the weakest April-June period since 2012

■ Avg. Monthly Sales in Spring



Source: Redfin Corp.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 CNNBusiness: ChatGPT maker says its new AI model can reason and think ‘much like a person’

#### ChatGPT 제조업체 “새로운 AI 모델, 사람처럼 생각”

- OpenAI가 과학, 코딩, 수학 분야에서 문제를 추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 ‘OpenAI o1’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박사 과정 학생과 비슷한 성능이라고 밝혔다. OpenAI o1은 ChatGPT 사용자에게 점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 기술은 암이나 기후 위기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첨단 AI 시스템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목요일 백악관 관리들과 미국 최고 기술자들이 AI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N에 따르면 OpenAI의 CEO Sam Altman, 구글 고위 임원 Ruth Porat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CNNBusiness 기사

### [글로벌 경제]

## WSJ: For Years, Chinese Workers Could Retire at 50. Now, China Can't Afford It.

### 중국, 50세 퇴직 연령 힘들어져

- 중국은 수년 동안 은퇴 연령이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남성은 60세가, 여성은 50세가 정년이었다. 하지만 중국 다음 세대는 이제 더 오래 일해야 할 것이다.
- 연금 부족과 경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법정 퇴직 연령을 남성 63세, 블루칼라 여성 55세, 나머지 여성 58세로, 내년 1월부터 15년에 걸쳐 점차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소 연금 납입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현재 중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대체하고 연금 시스템을 유지할 젊은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UN은 2050년까지 중국 인구 31%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중국은 새로운 퇴직 연령이 7월에 17.1%를 기록한 높은 청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 소셜 미디어 웨이보에는 “노인들은 은퇴할 수 없고, 젊은이들은 취직할 수 없다.”, “부모와 조부모가 일자리를 모두 차지해서 기대 살 수밖에 없다.”와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mazon Boosts Pay for Its Drivers Following Threats to Unionize 아마존, 노조 결성 막기 위해 택배 기사 임금 인상

- 아마존이 택배 기사들의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약 20억 달러를 투자해 임금을 작년 평균 20.50달러에서 7% 늘어난 시간당 약 22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2018년부터 전국 소규모 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소포를 직접 배송하고 있다.
- 아마존은 또한 택배 기사가 급여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미지급 임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 도입, 대규모 아파트에서 더 쉽게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 지침을 단순화하는 기술 업데이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
- 최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캘리포니아 Palmdale과 애틀랜타에서 아마존 택배 배송을 위해 계약한 운전기사들의 공동 고용주로 아마존을 지정했다. 이 결정은 위원회의 아마존과 택배 기사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아마존은 이들과 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

WSJ 기사

## CNBC: Boeing factory workers strike for first time since 2008 after overwhelmingly rejecting contract

## 보잉,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

- 보잉 근로자들이 금요일 새로운 근로 계약이 거부된 후 파업을 시작했다. 시애틀 지역과 오리건주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국제 기계공 및 항공우주 노동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가 발표한 잠정 합의안에 94.6%가 반대했고, 노동자 96%가 파업에 찬성했다.
- 회사 측은 직원 및 노조와 관계 재설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합의안에는 25% 임금 인상과 기타 의료 및 퇴직 혜택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노조는 약 40%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파업의 영향은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가냐에 달렸다.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보잉 주가는 4% 하락했다. 보잉은 올해 이미 약 80억 달러를 소진했으며, 부채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제조 결함, 공급 및 인력 부족과 같은 업계 전반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생산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NBC 기사

### [보고서]

## 유럽 이어 美도 곧 동참...세계 중앙은행 금리인하 속도 낸다 일본은 통화정책 반대 방향, 연내 인상 전망

유럽이 정책 금리를 또 내리고 미국도 곧 합류가 예상되는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현지시간) 예금 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리는 등 정책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지난 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이던 정책 금리를 일제히 낮추면서 통화 정책을 전환한 이래 석 달 만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